

한국 번역학 연구의 선구자 송요인(宋堯仁)과 그의 번역 이론에 관하여*

이상빈(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 발자취를 남겨라.

—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묵묵히 정진하는 사람은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그들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구자 중에는 마샬 필(Marshall R. Pihl, 1933~1995)과 송요인(1932~1989)도 있었다. 마샬 필은 1957년 군인 신분으로 한국을 처음 찾은 후 한국에 매료되어 한국문학 교육과 번역에 여생을 바친 인물이다. 하버드대

* 본 연구에 영감을 주신 조의연 교수님과 『동대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신 대학미디어센터 미디어팀(서준호 선생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길고도 복잡한 이 논문을 읽고 논평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과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4S1A5A2A01019660).

학 시절, 한국을 더 잘 알기 위해 ‘극동 언어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폴브라이트 1기(1962~1965) 장학생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1966년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국내 대학(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4년에는 미국 대학(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초로 한국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영수의 「남이와 옛장수」를 번역해 『The Korea Times』가 후원하는 제1회 <한국 현대문학 번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홍길동전」 경판본과 판소리 「심청가」를 최초로 완역하는 등 한국문학 알리기에 일찍이 앞장섰다. 그는 한국학이 적박한 당시 미국 사회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문학을 번역·연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속 대학에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얻지 못해, 연구와 교육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었다. 뒤늦게 하와이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지만, 불과 몇 년 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가 이런 선구자에 대해 무지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상황은 일부 ‘K-문학’ 번역가들이 언론이나 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은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¹⁾ 필자는 이런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지난 몇 년간 마샬 필의 번역본들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소개한 바 있다(이상빈, 2019, 2020a, 2020b, 2021a, 2021b; Lee, 2019, 2020, 2021). 바로 이 글도 한 선구자에 대한 학계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할 송요인(1932~1989)도 마샬 필과 여러 면에서 닮아있다. 송요인 역시 남보다 앞서 한국문학 번역에 관심을 쏟았고, 번역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그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필이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학의 번역과 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면, 송요인은 내국인으로서 한국문학을 번역하면서 번역 이론을 정립하고 번역학의 터전을 마련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했으나 학문적 담론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1) 필자는 마샬 필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그를 서울시 명예시민(외국인 대상)으로 추천하고자 했지만, 명예 시민증은 고인에게 수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를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후보로도 추천한 바 있으나, 좋은 소식을 얻지 못했다.

살아생전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가지 접점이 있었다. 그들은 1년 차이로 태어났고,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이 초창기에 번역했던 작품(오영진의 「시집가는 날」)도 같았다. 무엇보다도 둘은 서로를 인정했던 듯싶다. 송요인은 뛰어난 내향 번역가(inbound translators)의 필요성과 자질을 강조한 바 있는데, 바로 그런 자질을 필과 같은 사람에게서 보았다(송요인 등, 1970. 4. 23.). 한편, 필은 송요인의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1984)가 출간된 직후 『Korea Journal』에 서평을 발표한 바 있다(Pihl, 1985). 이 서평에서 그는 책의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번역학에 대한 송요인의 열정과 학문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림 1>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일찍이 두 사람은 한국문학 번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께했다(van Volkenburg, 2021).

그림 1

한국문학 번역 토론회에 참석한 송요인(가장 왼쪽)과 마셜 필
(왼쪽 두 번째) (『The Korea Times』 1970년 2월 1일 사진)



다만, 송요인은 번역 실무 자체보다는 번역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였다. 그가 번역 이론을 연구했던 시기는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 후반까지다. 당시 국내에는 번역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자신만의 번역 이론을 정립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송요인은 유진 나이다(Eugene Nida, 미국), 죄르지 라

도(György Radó, 헝가리), 안톤 포포비치(Anton Popovič, 슬로바키아), 볼프람 빌스(Wolfram Wilss, 독일)와 같은 번역 이론가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전문 영역인 언어학을 토대로 번역의 기본 단위나 번역의 인지적 절차 등에 관한 이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구적 노력은 국내 번역학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발표한 원저 논문(original article)만 해도 20편 정도나 되는데, 한국 번역학의 현대적 기원에 관한 논의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 있거나 배경화 되어 있는 점은 의아하면서도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송요인의 번역 관련 연구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령,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번역학의 태동을 90년대 말에 설립된 통·번역 학회나 1979년에 개원한 통번역대학원에서 찾았다.²⁾ 나중에 다시 논하겠지만, 송요인은 번역 이론에 관한 17쪽 분량의 논문을 1969년에 발표했고, 1974년에는 번역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사망 시점인 1989년까지 번역 이론에 관한 집필을 쉬지 않았다.³⁾

-
- 2)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정화(최소희) 전 한국외대 교수는 “1978년 통역번역학이 국내에 들어온 뒤 최근 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황태훈, 2009). 하지만 이는 통번역대학원의 설립을 통·번역학의 도입 시점으로 규정한 관점이다. 여기서 “학”을 어떤 의미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은 번역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석사 과정식 학습이 아니라 번역에 관한 학술적 탐구를 가리킨다(최근에는 석사과정에도 ‘학’의 성격이 가미되긴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에서 ‘번역학’이라는 술어는 김효중의 1984년 논문(‘번역학과 여성’, 女性問題研究, 13: 179-189)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영훈(2013, p. 209)의 언급도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김효중도 최정화와 마찬가지로 번역학을 번역 ‘실무’ 학습으로 규정하는바, 현시점에서 번역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역학과는 거리가 있다(김효중은 ‘번역학’을 science of translation으로 표기했는데, 송요인[Song, 1984b, p. 5]에 따르면 이 술어는 번역 과정 자체를 science로 해석하게 할 소지가 있다). 국내에서 번역학이라는 용어를 본연적 의미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학자는 송요인인 듯하다. 김효중의 논문과 같은 해에 출간된 송요인의 저서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1984)는 Translation Studies와 Translatology란 용어를 본연적 의미에서 사용한다.
- 3) 번역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 중에는 50~60년대 저작물도 더러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두 장 정도의 에세이일 때가 많다. 번역 이론에 관한 국내 박사학위 논문 중 송요인의 논문보다 일찍 출간된 것은 최해춘(1973)의 『翻譯(번역)의 理論

따라서 오늘날 연구자들이 수긍할 만한 대한민국 최초의 번역학자⁴⁾는 송요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조의연, 2014, pp. 5-6; 조의연과 이상빈, 2023도 참고할 것).

본고에서는 송요인과 그의 번역 이론을 탐구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선언하자면,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필자가 속한 학계의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과 대선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가장 큰 집필 동기였다.

이 글의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송요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특히 한국문학 번역에 관한 그의 관점과 업적을 열거하고, 그가 남긴 두 이론서를 중심으로 번역학자 송요인을 조명한다. 이어 3장부터 6장까지는 그가 학자로서 가장 집중했던 개념인 ‘Weltanschauung’, ‘슈프라흐게휠’(Sprachgefühl), ‘가역 핵 구조’(translatable core structure), ‘역소’(transeme)를 차례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그가 어떤 영역을 이론화하고자 했는지, 각 영역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보완하려 했는지, 나아가 그의 연구 성과에 어떤 의미나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송요인과 그의 번역학 저서

송요인은 1970~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학자이자 번역학자였다. 1960년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1968년 2월부터 20년 넘게 동국대에 재직하면서 영어 교육과 번역 연구에 매진했다(동대신문, 1989. 8. 30.). 국제 PEN 한국본부 이사, 한국 왕립 아시아 학회장⁵⁾ 한국 영어교육

[이론]과 그 問題點[문제점]: 韓國[한국]의 散文文學[산문문학]의 英譯[영역]을 中心[중심]으로』가 유일하다. 다만, 최해춘의 연구 성과는 송요인의 경우와 달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참고로 말하면, 송요인의 마지막 논문은 사후 『TTR』에 게재된 「Remarks on Cultural Transfer from an LLD」(1991)이다.

4) 어떤 주제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어떤 주제에 관한 논문을 몇 편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당 분야의 ‘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학자로 칭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 업적이 연구로 정의되고 귀결되어야 한다.

5) 1976년 한국 왕립 아시아 학회(Royal Asiatic Society Korea)를 이끌었다. 이 학회의

학회장, 『The Korea Times』 논설 고문, 문교부(교육부) 외국어 교육 고문 등을 역임했다(Song, 1987, p. 152).

영어에 대한 송요인의 열정은 일찍이 남달랐다. 그는 충분한 어학 실력 없이는 전공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학창 시절 대부분을 영어 공부에 바쳤다. 『동대신문』에 실린 자전적 수필 「내가 다시 大學生이 된다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다시 大學生[대학생]이 된다고 가상한다 해도 학습적인 면에 있어 서만은 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질 않는다. 비록 事變[사변]과 軍[군] 服務[복무]로 인하여 두 동강이 나버린 大學[대학] 生活[생활]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학과 공부만은 후회가 나질 않을 정도로 했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중략] 英語會話[영어회화]라는 分野[분야]는 英文學科生[영문학과생]으로서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課外[과외] 時間[시간]의 優先順位[우선순위] 第一[제1] 항목으로 삼고 放送[방송] 청취, 강연회 참석, 영화 관람(특히 미국공보원의 문화영화) 그리고 會話[회화] 강습 등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택해서 總力[총력] 學習[학습]을 한 셈이다. (송요인, 1976. 3. 16.)

이런 “총력 학습”의 결과, 송요인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예컨대 <그림 2>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유창한 영어가 필요한 공식 석상이나 전문 통번역이 필요한 곳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동국대학교 영어신문 발행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학생들의 영어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영어 집필에도 진심이었다. 영어 수필을 꾸준히 써온 결과, 개인 수필집 『Sojourns in Korean Culture: Song's Essays』(1991)⁶⁾를 출간할 수 있었고, 연구 논문이나 전공서도 영어로 작성할 때가 많았다(일반 주제에 관한 송요인의 저작물은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음). 조병태 서울대 교수는 송요인의 저서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1975)를 두고 “該博[해박]한 학문

회장 중에는 제임스 게일(1911~1915년), 리차드 러트(1974년), 제임스 호이트(1982년), 서지문(1995~1996년), 안선재(2011~2020년)처럼 한국학과 번역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많다.

6) 동국대학교 조의연 교수가 수필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적 지식과 유려하고도 명료한 英文[영문]의 표현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조병태, 1975. 6. 24.).⁷⁾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을 영역한 사람도 바로 송요인이었다(동대신문, 1968. 12. 5.).⁸⁾

그림 2

문인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취재 여행(1977.6.)에 통역사로 동행했던 송요인(왼쪽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 (정연희, 2015, p. 34의 사진 일부)



송요인은 한국문학 번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송요인의 번역 리스트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한 교수였으니 번역에만 몰두할 수 없었지만, 한국문학만큼은 다양한 장르를 고려해, 꾸준히 번역해 보자는 게 그의 생각이었던 듯싶다. 가령 황순원의 「온기있는 파편」,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등의 단편소설 뿐만 아니라 이근삼의 「거룩한 직업」⁹⁾과 오영진의 「시집가는 날」¹⁰⁾ 같은

7) 필자가 판단하건대, 두 번째 이론서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1984)가 표현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 송요인의 학술적 글쓰기는 이 책을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8) 번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현장에서 바로 번역했다고 한다(조의연, 2023년 8월 21일, 개인적 소통). 1971년 10월에 발간된 『Korea Journal』에는 <국민교육헌장>의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이곳엔 번역가에 관한 언급이 없다. 흥미롭게도 이 번역본 바로 위에 송요인의 에세이 「Nunch'i」가 있다.

9) 송요인은 이 영역본(「A Respectable Profession」)을 『Modern Korean Short Stories and Plays』(1970)라는 편저에 수록했고, 나중에 이를 교정하여 『Korea Journal』(1980년 3월호)에 게재했다. 『What Is Korean Literature?』에 수록된 그의 영역본은

희곡 작품들도 번역했다. 또한 불교와 관련된 시(조) 109수를 번역해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Buddhist Poems from Korea』(1987)라는 선시집(選詩集)¹¹⁾을 출간하기도 했다. 문학 번역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한국문학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문학계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양질의 번역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자연스럽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이중호, 2021, 2022).

송요인은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외국인에게서 찾았다. 당대 외향 번역가(outbound translators)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였지만, 본인과 같은 내국인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내향 번역가(inbound translators)의 본연적 강점 — 4장에서 살펴볼 목표어에 대한 감각(슈프라흐게휠) — 을 매우 중시했으며, 한국문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식견 있는 내향 번역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다음 글이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國文學[국문학] 作品[작품]이 본격적으로 영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70년대 이후에는 ‘內向[내향]’ 譯者[역자]들의 활동이 보다 더 돋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기도 하다. [중략] ‘外向[외향]’이든 ‘內向[내향]’이든 역자는 기본적인 資質[자질]으로써 比較言語學[비교언어학]·比較文學[비교문학]·比較民俗學[비교민속학]·比較文體論[비교문체론] 등 諸分野[제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識見[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질 韓國文學[한국문학] 作品[작품]의 英譯[영역]의 成敗[성패] 如否[여부]는 ‘內向[내향]’ 譯者[역자]들이 어느 程度[정도]까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1970년에 출판된 것을 약간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Kwon & Fulton, 2020, pp. 208-225).

- 10) 송요인은 「시집가는 날」을 번역하여 『Korea Journal』(1971년 12월호와 1972년 1월호)에 분할게재했고, 약 10년 뒤에는 전체 번역본을 『Wedding Day and Other Korean Plays』(1983)라는 편저에 수록하였다. 이 편역서는 20세기에 출판된, 몇 안 되는 한국 희곡 영역(英譯) 선집이다. 브루스 풀턴(Fulton, 2020, p. 110)이 작성한 “Suggested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에도 소개된 책이다.
- 11) 케빈 오록 교수가 이 역사의 서평을 썼다(O'Rourke, 1988, pp. 39-40).

을 것이다. (송요인, 1975. 5. 13.)

자신이 애착을 갖고 한국문학을 번역해 왔으니 ‘외향 번역’을 고집할 만도 한데, 송요인은 그러질 않았다. 그는 외향 역자들이 “미개척 분야에 초창기적인 공헌을 했다”면서도, 목표어 역량이 모국어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상대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송요인, 1975. 5. 13.). 이런 이유로, 여러 분야에 식견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번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호했다. 그가 80년대 후반에도 이 주제로 논증적 글(송요인, 1986)을 쓴 바 있으니, 당시 내향 번역과 외향 번역을 둘러싼 국내 번역장(translation field)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²⁾

이처럼 번역에 대한 송요인의 관심은 지대했다. 번역을 꾸준히 하면서도 번역을 둘러싼 환경과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특히 한국문학의 핵심 주체인 번역가와 그들의 자질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번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번역에 관한 송요인의 유산은 번역가가 아닌 ‘번역학자’의 틀 속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1960년대 말부터 언어학적 관점에서 번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논문 「Literary Translation: A Linguistic Overview」(1969)를 시작으로, ‘문화적 등가’, ‘공기 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 ‘불투명성’(opacity), ‘언어 생활권의 세계관’(Weltanschauung)¹³⁾에 관한 논문들을 『동국대학교 논문집』¹⁴⁾이나 『Korea Journal』에 차례로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1974년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논문명: 『Translation: A Modern Synthesis — A Study in Crosslingual Communication』)를 받았다.¹⁵⁾ 이듬해에는 이 학위논문을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이

12) 2000년대 말만 해도 일부 번역자들이 ‘한국문학은 한국인(외향 번역가)이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향 번역가의 충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한국어가 모국어인 자)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13) 이 한국어 용어는 송요인의 박사학위 논문 초록에서 가져온 것이다(Song, 1974a, p. 121). 다음 단락부터는 ‘벨트안샤우웅’으로 음차한다.

14) 송요인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 『동국대학교 논문집』을 1차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그의 아이디어를 추적하려면 이 논문집부터 살펴봐야 한다.

하 “TTP”)로 출판했는데, 바로 이 책이 앞서 언급한 송요인의 첫 번째 번역 이론서이다. 이 책은, “유진 나이다의 영향력이 거의 모든 페이지에 스며들어” 있을 정도로, 나이다의 이론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Song, 1975, p. vii).¹⁶⁾ 송요인은 『TTP』를 출판하기까지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료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찰스 테이버(Charles R. Taber)와 리처드 러트(Richard Rutt)¹⁷⁾에게도 원고를 보냈다(Song, 1975, pp. vii-viii).

『TTP』 출판 이후 송요인의 연구는 한층 더 발전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그가 관심을 둔 분야는 “연구의 빈틈”(leaks)이라고 명명한 첫 번째 저서의 공백, 즉 번역의 인지적 측면에 관한 사변적 요소들이었다(Song, 1984b, p. i). 특히 벨트안샤우웅(Weltanschauung), 슈프라흐게휠(Sprachgefühl), 가역 핵 구조(translatable core structure), 역소(transeme) 등에 관한 연구는 그가 번역학자로서 공헌한 핵심 영역에 속한다. 앞서 그러했듯이, 그는 연구 결과들을 개별 논문으로 출판한 후 하나의 이론서로 집대성했는데, 바로 이 책이 1984년에 출간한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이하 “TTS”)이다.¹⁸⁾ 번역 이

15) 이영훈(2013, p. 211)은 “김효중의 1987년 발표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영남대 국문과 박사)가 번역 관련 국내 최초의 석·박사논문”이라고 추정했지만, 송요인의 박사학위가 김효중의 것보다 13년 정도 빠르다. 송요인이 직접 풀어쓴, 박사학위 논문의 한국어 제목은 “近代[근대] 言語學[언어학] 理論[이론]에 立脚[입각]한 翻譯[번역]에 대한 綜合的[종합적] 研究[연구]”이다. 각 장의 제목은 (1) Introduction, (2) Linguistic Preliminaries, (3) Crosslingual Meaning, (4) Dimensions of Opacity, (5) Discourse Analysis, (6) Problems of Style인데, 이 배열 순서를 보면 그가 언어학적 층위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 송연석 교수가 6장 “Problems of Style”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번역문제론』(조의연 역)에 수록하였다(Song, 2014, pp. 17-36).

16) 국가 간 교류가 쉽지 않던 그 당시, 송요인은 나이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1970년 2월 1일자 『Korea Times』 기고문에서 나이다의 1969년 9월 논문을 언급할 정도였다(Song, 1970, 2. 1.). 2023년 8월 21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故 송요인 교수 헌정식>에서 조의연과 이상빈이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

17) 찰스 테이버는 유진 나이다와 함께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을 출간한 인물이다. 리처드 러트는 한국문학 번역에 있어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특히 시조 번역 분야에서 유명하다.

18) 책의 장 제목은 (1) Introduction, (2) Weltanschauung and Translation, (3) Sprachgefühl and Translation, (4)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5) The Transeme, (6) Literary

론과 실무를 반씩 섞어둔 듯한 『TTP』와 달리, 『TTS』는 관념적인 소재들을 주로 다룬 전형적인 학술서이다. 이러한 대비는 서명(書名)뿐만 아니라 본문에 사용된 핵심 용어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TTP』에서는 번역학을 가리켜 “emerging discipline” 혹은 “relatively new discipline” 정도로 묘사하는 게 전부였으나, 『TTS』에서는 본문 서두부터 “Translation Studies”와 “Translatology” 등의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논의 대상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한다.¹⁹⁾

지금까지 소개한 두 저서는 국내 최초로²⁰⁾ 번역(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근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탐구한 것으로, 당대 서구의 연구 성과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정말 놀랍고 부끄러운 점은 영어로 쓰인 번역학 일반 이론서 가운데 국내 학자가 집필한 것은 아직도 이 두 권이 전부라는 사실이다.²¹⁾ 이러한 업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개인적 성향(영어에 대한 애

Translation, (7) Linguistics and Translation이다.

- 19)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는 1972년 발표한 논문에서 “Translation Studies”라는 명칭을 제안했는데, 『TTS』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TTS』의 참고문헌에 수잔 바스넷의 『Translation Studies』(1980)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바스넷의 주장이 송요인에게 영향을 준 듯싶다. ‘홈즈 그룹’의 일원인 그녀가 『Translation Studies』를 출간하면서, 홈즈의 제안이 파급력을 갖기 시작했다(Munday & Vasserman, 2022, p. 102). 참고로, 송요인(Song, 1984b, pp. 4-5)은 『TTS』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I have so far deliberately shunned the use of terms like “Translation Theory,” “the Science of Translation,” “Translatology,” and “Translatory (or Translational) Linguistics,” [...]. The term “Science of Translation” is apt to be confusing in that the process of translation *per se* might be construed as a science. What the term means is that translation can be subjected to scientific scrutiny even though it is an artistic process. The term “Translatology” has the effect of rendering the discipline more systematic and rigorous-sounding because of the suffix “-ology.” The term “Translatory (or Translational) Linguistics” in effect subordinates translation to linguistics much as Mathematical Linguistics does to Mathematics. Hence the most unassuming, catholic, broad-based term “Translation Studies” has been chosen for the title of this book.
- 20) 토레스 시몬(Torres Simón, 2005, p. 10)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의 번역학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이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TTP』와 『TTS』이다. 다만, 두 책의 제목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
- 21) 최근 들어 해외에서 수학한 국내 연구자들도 해외 출판사를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한 번역학 저서를 출간했다. 라우트리지(Routledge) 출판사에서 발행된 최진실

작)이나 언어학의 학문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가 한국문학 번역의 종착지를 내향 번역으로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해외 번역학자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소개하려는 그의 학문적 욕심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당시 국내에서 송요인이 원하는 수준의 학문적 교감을 찾기란 제법 어려웠을 것이다.²²⁾

안타깝게도 송요인의 학문적 성과는 국내 번역학 전공자들에게도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에서 관련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²³⁾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 논의는 세 편 남짓의 서평에 불과하다.²⁴⁾ 이중 전문 학술지에 실린 서평은 해외 학자가 쓴 것이고 이마저도 오랜 시간이 지나 열람하기도 어렵다. 이 같은 연구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많다. 우선, 당시 번역학 담론이 언어학 담론에 비해 대학 내에서 갖는 위상이 매우 낮았고, 송요인의 연구 주제가 2000년대 학위과정을 밟은 사람들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물 대부분이 근대 언어학을 다루는 테다 난도가 높은 학술 영어로 쓰여 있고, 『TTS』 등은 일부 도서관에만 존재하는 희귀 도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하여 학문 후속 세대가 부족했던 점도 이유라면 이유다.²⁵⁾ 그가 사망한 시점인 1989년과 국내 최초의

의 『Government Translation in South Korea: A Corpus-based Study』(2022), 윤후남의 『Appropriations of Irish Drama in Modern Korean Nationalist Theatre』(2023), 김경혜의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ranslation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2025)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일찍이 박성희가 『Translation and Textuality』(2001, 한국문화사)를 출간했다.

- 22) 송요인이 저작물 대부분을 우리말로 썼다면, 국내 번역학의 연속성이 확보됐을까? 지금도 많은 연구자가 KCI에 등록된 외국어 논문을 쉽게 지나친다.
- 23) 송요인의 저작물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손태수(Sohm, 2007, p. 283)는 「감자」의 영역본을 분석하면서 송요인의 관점을 인용한다.
- 24) 해외 번역학 학술지 『Babel』에도 『TTS』의 “Book Review”가 실렸다(Radó, 1985, p. 108). 다만, 목차 정도만을 소개하는 지극히 짧은 글이어서 서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도와 교류해 왔던 송요인은 이 ‘서평’이 발표된 이듬해에 한 논문에서 라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Song, 1986). 이 점을 고려할 때 라도의 ‘서평’은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다.
- 25) 송요인에게 영향을 받았던 조의연 등의 언어학자들이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에 영어·통번역학 전공을 개설했다. 이후 영어·통번역학과 교수들은 국내 통·번

번역학 단체가 설립된 1998년 사이에는 10년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통·번역을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접 분야의 교수들이거나 이제 학문을 시작한 실무자들이었기에, 송요인의 학문적 성과를 빠르게 이어가기란 쉽지 않았을 터이다.²⁶⁾

3. 벨트안샤우웅 — 번역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논의

안일하게 ‘번역은 반역’이라는 伊太利[이태리]의 格言[격언]이라든지 흠볼트[흠볼트]의 ‘번역은 불가능을 실천하려는 헛된 기도 같은 것’이란 개념에만 自慰[자위]하는 感傷[감상]에 가까운 翻譯觀[번역관]은 再考[재고]될 때가 바야흐로 到來[도래]한 것이다. (송요인, 1975. 5. 13.)

이 발췌문에서 송요인은 번역 불가능성(untranslatability)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 시각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1970년대 국내 문단이나 학계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70년대는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당시 많은 전문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 번역을 불가능한 작업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적 색채가 짙은 소설을 ‘서구’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²⁷⁾ 그럼에도 송요인은 한국문학 번역의 실현 가능성

역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 필자는 이를 송요인의 유산으로도 해석한다.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의 설립 목적(KCI 자료)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동국대학교 번역학 연구의 역사는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고하신 송요인 교수는 일찍이 한국 번역학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 26) 본 논문의 심사위원은 “송요인 선생은 논저 대부분을 영어로 작성한 ‘외향 번역 학자(outbound translation scholar)’였다… 바로 이 점이 국내 학술장에서 그의 연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필자도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본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은 집필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 27) 당시 외향 번역학자들이 느꼈던 어려움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송요인과 대담을 했던 조연현 교수는 “엄밀히 말해서 문학작품의 번역은 불가능합니다. 번역을 통해 전달이 가능한 것은 개념의 전달 정도로 봐요. 특히 歐美語[구미어]로 번역한다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작품을 日譯[일역]하는 것과 英譯[영역]

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었다.

송요인의 이런 믿음은 벨트안샤우웅(Weltanschauung)에 관한 연구(Song, 1976)로 이어졌다. 벨트안샤우웅은 ‘세계관’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인데, 송요인은 이 의미를 전유하여 자신의 번역관을 피력하였다. 그는 『TTS』에 수록한 용어 목록(glossary)에서 벨트안샤우웅을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혹은 개인적인 철학’으로 정의한다(Song, 1984b, p. 126). 하지만 이는 너무도 탈-번역적인 설명이어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질 않는다. 송요인의 설명을 번역의 맥락에 적용해 보면, 벨트안샤우웅은 원천언어권이나 목표언어권에서 각기 공유되는 세계관, 즉 원문과 번역문에 내재한 각각의 세계관을 뜻한다.

송요인은 벨트안샤우웅을 설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TTS』에서 벨트안샤우웅을 다룬 장이 본문 분량의 30%를 차지하니 말이다. 다만, 벨트안샤우웅에 관한 설명 중 상당 부분은 근대 언어학 이론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사례 분석보다는 관념적 해설이 많아, 번역 실무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송요인도 『TTS』를 읽을 때 벨트안샤우웅에 관한 내용을 나중에 읽으라고 조언할 정도다(Song, 1984b, p. 4). 하지만 그와 왜 이 개념에 공을 들였는지 시대적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벨트안샤우웅에 관한 논의에서 송요인이 가장 먼저 다룬 주제는 ‘사피어-워프 이론’으로 알려진 언어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 가설이다. 이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인데, 언어의 영향력에 따라 그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언어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강한 언어 결정론’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가 사고를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약한 언어 결정론’이다. 송요인은 이 가운데 전자를 강하게 부인한다. 강한 언어 결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작품의 日譯[일역]은 다행히 언어 조직이 비슷해서 가능할 것 같으나 그것도 완벽하겐 되지 않아요. 그런데 歐美語[구미어]로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古典[고전] 國譯[국역]에서도 보면 史學[사학] 계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經書[경서] 계통으로 가면 注[주]를 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注를 읽어가며 번역 작품을 읽어야 한다면, 그건 이미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번역이란 것은 최대한도로 그 개념이나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주장했다(송요인 등, 1970. 4. 23.).

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한국문학의 영역본은 이해 불가능한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다. 강한 언어 결정론에 입각한 번역관 — 즉, 송요인이 앞서 지적한 “자위하는 감상에 가까운 번역관” — 은 번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패배주의부터 심어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송요인은 급진적 형태의 사피어-워프 가설을 비판한 것이다.

송요인은 벨트안샤우웅에 보편항(普遍項, *universals*)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편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체화된 경험 등²⁸⁾을 가리키는 데, 바로 이 공통 분모 덕택에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족에 관한 어휘가 달라도 미국인이 한국인의 친족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친족에 대한 경험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언어권에 따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언어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방식으로도 재현된다. 이를 유명한 학술 용어로 표현하면, 전자를 ‘에믹’(emic) 접근법으로, 후자를 ‘에틱’(etic) 접근법으로 부를 수 있다.²⁹⁾ 만일 ‘정’(情)을 *affection*, *interpersonal bond*, *emotional attachment* 등으로 통역한다면, 이는 에틱 방식에 방점을 둔 소통이다. 반면, 한국의 정을 문화 특수성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며 번역 불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에믹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다. 송요인에 따르면 번역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에믹이 에틱을 압도하는 때는 없다. 송요인은 에믹 사고관을 고집하는 번역 이론가나 번역 실무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송요인이 언어들의 보편항을 강조한 이유는, 그러한 공통 분모 없이는 번역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번역 이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믹의 위세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면, 언어권마다 번역 이론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 글로벌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은 애당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송요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8) 육체적, 물리적 경험뿐만 아니라 심리·인지적 경험 등을 포괄한다.

29) 에믹과 에틱은 언어학, 인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전자를 ‘문화 내부적 접근’, 후자를 ‘문화 일반적 접근’으로도 부르지만, 이러한 표현은 용어의 본질적 특징을 살리지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음차하기로 한다.

번역 이론은 광범위한 실질적 보편항(substantive universals)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런 보편항이 언어학에서는 부차적인 연구 대상이겠지만, 번역 이론[번역학]에서는 매우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략] 한국인의 문화적 초점과 영미권 사람들의 문화적 초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전자와 후자가 공유하는 벨트안샤우웅[에탁]은 불투명하고 다루기도 힘든 에믹보다 훨씬 더 많다. 원칙적으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혹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불투명하거나 다루기 힘든 요소[에믹]는 존재하지 않는다.³⁰⁾ (Song, 1976, p. 116, 필자의 번역임)

벨트안샤우웅과 보편항은 송요인이 사망한 후에도 중요한 탐구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송요인의 말처럼 보편항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번역을 실천하고 연구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당연하게 여긴 탓이 크다. 예외적으로 김효중(2002)이 「번역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슷한 주제를 탐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송요인의 방대한 연구 성과를 계승하지 못했다.

4. 슈프라흐게휠 — 번역의 성공 가능성에 관한 논의

슈프라흐게휠(Sprachgefühl)은 ‘어감’(語感, language feeling)에 해당하는 독일어 단어이다. 송요인(Song, 1984b, p. 41)은 슈프라흐게휠에 관한 논문에서 웹스터 사전을 인용하며 이 단어의 뜻을 “sensitivity to conformance with

30) Translation theory is predicated on the existence of a broad range of substantive universals. The search for them may be of marginal interest to linguistic theory proper but of vital interest to translation theory. A people's Weltanschauung is reflected etically as well as emically in their language behavior. [...] No crucial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cultural foci of the Koreans and those of the Anglo-Americans. The various dimensions of Weltanschauung that the former share with the latter far outnumber the apparent emic features which are opaque or intractable. But, as a matter of principle, nothing in Korean is so opaque or intractable as to defy translation into English or vice versa *in toto*.

or divergence from the established usage of a language”와 “a feeling for what is linguistically effective or appropriate”로 소개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특정 언어에 어감이 있는 사람은 어법에 맞는 언어 사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과 효과적인 언어 사용이 무엇인지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어감은 언어 사용의 한 유형인 번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원천어에 대한 어감이 부족하면 원문의 미묘한 의미를 놓치기 쉽고, 목표어에 대한 어감이 부족하면 번역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어감은 통사·의미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식과 민족·심리학적 지식 등을 아우른다. 이 때문에 외국어를 제법 잘하는 사람도 어감이 부족하면 형편없는 번역문을 내놓기 십상이다. 이처럼 ‘번역에 필요한 어감’을 강조하기 위해 송요인은 ‘슈프라흐게휠’³¹⁾이라는 낯선 단어를 끌어온 것이다. 그가 벨트안샤우웅을 통해 번역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언어·문화적 역학을 살펴봤다면, 슈프라흐게휠을 통해서서는 번역의 ‘성공’ 가능성을 위한 번역가의 자질을 논하였다.

송요인이 슈프라흐게휠을 상세히 소개한 대목은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을 논할 때다. 그는 슈프라흐게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의 ‘주어 생략’(subject deletion), 한국어의 ‘교착성’(膠着性, agglutination)³²⁾ 그리고 ‘화계’(話階, speech level)라는 세 가지 문제를 언급한다. 특히 교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복잡하고 긴 문장’ —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70~80년대에는 긴 문장을 선호하는 작가들이 많았다 — 을 영어로 번역할 때 통사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단락에 버금갈 정도로 긴 문장을 번역해야 한다면, 여러 개의 읽기 편한 문장들로 분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번역 방법이다. 하지만 문장을 무턱대고 절단해 버리면 원작자의 어감에서 비롯된 미묘한 특징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도

31) 필자는 슈프라흐게휠(번역에서의 어감)을 어감의 하위어로 사용한다. ‘슈프라흐게휠’이라고 적어야만 번역의 맥락을 강조할 수 있고 송요인의 관점도 용어 속에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세계관’ 대신 ‘벨트안샤우웅’을 사용했다.

32) 교착은 접사를 붙여서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는 방식이다(예: ‘먹었습니다’ = 먹(어근) + 었(과거) + 습니다(존칭)). 따라서 교착어에서는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면서도 영어의 의미·통사론적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³³⁾ 송요인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슈프라흐게휠이 모두 있어야 이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송요인이 슈프라흐게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국내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Song, 1978). 그에 따르면, 당시 국내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어감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수업에서는 독해 등의 수용적(receptive) 언어 기술만이 강조되었고, 학습 교재도 산출적(productive) 기술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사들조차도 어감을 고루 갖춘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회의적이었다. 외국어 교육의 현실이 이러하니, 전문가 영역에서도 상황은 낙관적일 수 없었다. 특히 ‘전문 번역가’에 대한 송요인의 진단은 매우 냉철했다. 그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번역가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10% 미만으로 예측했고(Song, 1984b, p. 47),³⁴⁾ 한국어 슈프라흐게휠과 영어 슈프라흐게휠을 모두 갖춘 문학 번역가는 전무하다고까지 주장했다(Song, 1984b, p. 60).

이처럼 슈프라흐게휠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 분야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슈프라흐게휠에 관한 그의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도 현실적이고 이념적이라 할 수 있다. 슈프라흐게휠을 소개한 1978년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있다.

本庫[본고]의 목적은 假稱[가칭] 「語感力學[어감 역학]」(Sprachgefühl Dynamics)의 含蓄的[함축적] 意義[의의]를 言語習得[언어 습득]과 번역의 見地[견지]에서 考察[고찰]하는 데 있다. 이에 관련되는 對話[대화] 규칙(Speaking Rule)과 統意話論[통의화론](Pragmantax)³⁵⁾을 비롯한 各[각] 現象[현상]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서 현재 한국의 실정

33) 마살 필은 실제로 이런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이상빈(2020b, pp. 225-226)과 이 (Lee, 2019, pp. 156-157)를 확인하면 이 단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4) 원저 논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주장은 “내 추측으로는 국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 중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어감을 갖춘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였다(Song, 1978, p. 36). 즉, 『TTS』에서 내용이 달라졌다.

35)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합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다.

과 필요에 입각한 몇 가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意通能力[의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궁극적인 성취는 語感力學에 관한 感受性[감수성]과 이해 및 능동적인 학습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言語習得이나 번역을 목표로 하는 教師[교사]나 피교육자로서의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실천 항목을 제시하였다. (Song, 1978, p. 31)

그러나 논문 본문에서는 송요인이 언급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실천 항목”을 찾기가 어렵다. 본문 대부분은 현실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안 모색은 거시적인 수준에서만 전개된다.

이 연구에는 또 다른 한계도 있다. 슈프라흐게휠이라는 개념이 여러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송요인은 논문 서두부터 웹스터 사전을 인용하며 슈프라흐게휠을 정의하려 했지만, 슈프라흐게휠에 관한 논의는 결국 독자의 주관적 이해에 근거를 둔다. 송요인(Song, 1978, p. 50) 자신도 인정했듯이, 슈프라흐게휠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번역의 맥락에서도 논의를 심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번역의 인지적 절차 — 가역 핵 구조

번역이 이루어지는 인지적 메커니즘은 일찍부터 번역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번역의 인지적 절차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를 선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지적 모델을 찾는 작업은 2000년대 이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시도를 한 사람 중에는 송요인도 있었다. 그는 번역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인지적 절차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ong, 1979, p. 3).

번역의 인지적 절차를 가장 먼저 고민한 학자 중에는 유진 나이다가 있다. 그는 ‘3단계 모델’(three-stage system)로 알려진 스키마(schema)를 통해 번역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가는 (1) 원문의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를 ‘분석’함으로써 메시지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추출

하고, (2) 이 요소들을 도착어로 ‘변환’한 후, (3) 의미론과 문체 등을 고려하여 도착어의 표층구조로 ‘재구조화’한다. 특히 1단계인 ‘분석’ 과정에서는 역변형(back-transformation)을 통해 표층구조에서 ‘핵’(kernels)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역변형은 변형생성문법의 4가지 기능적 범주인 ‘사건’(events: 동사 등), ‘대상’(objects: 명사 등), ‘추상’(abstracts: 형용사, 부사 등), ‘관계’(relational: 전치사, 접속사 등)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변형을 통해 추출한 핵 구조(kernel structure)는 다양한 방식의 변환, 예컨대 직역변환(literal transfer), 최소변환(minimal transfer), 문체변환(literary transfer)을 통해 도착어로 바뀐다.

그림 3

번역의 인지적 절차에 관한 나이다의 3단계 모델(Nida, 1969, p.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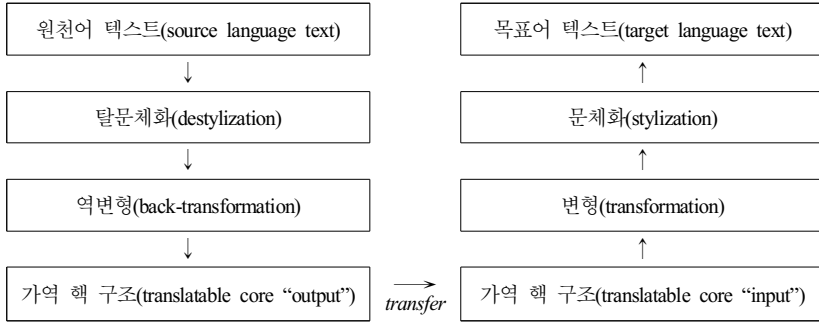


나이다의 모델은 송요인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송요인이 번역 스키마를 제안한 것은 번역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2년이었다. 그의 스키마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다의 이론을 발전시키면서도 직관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³⁶⁾이었다(Song, 1984b, p. 64).

36) 1972년 논문에서 송요인은 “이러한 process는 물론 noetic premise[사유적 전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圖表[도표]가 oversimplification[지나친 단순화]이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筆者[필자]는 Nida(1969: Figure 1)의 그것보다는 좀 더 具體的[구체적]이라고 自負[자부]하고 싶다”라고 주장한다(p. 39).

그림 4

번역의 인지적 절차에 관한 송요인의 스키마(송요인, 1972, p. 38; Song 1974a, p. 17)



<그림 4>에 따르면 번역가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번역을 수행한다.³⁷⁾ 먼저, 원문에서 문체적 특징(구조·어휘적 특징)을 걷어내고, 최소 구조(minimal structure)라 할 수 있는 ‘가역³⁸⁾ 핵 구조’로 원문을 역변형한다. 그 다음, 원천어의 가역 핵 구조를 목표어의 가역 핵 구조로 변환(번역)한다. 끝으로, 앞서 거쳤던 ‘탈문체화’와 ‘역변형’을 역으로 진행함으로써 목표어 텍스트를 완성한다.

송요인(1972, p. 37)은 이 모델을 제안하면서 두 가지를 덧붙인다. 첫째, ‘역변형’은 원천어 텍스트의 사건, 대상, 추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역변형에 관한 나이다(Nida, 1969)의 관점 — 변형생성문법의 내용 — 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둘째, 역변형과 변형에 들어가는 인지적 노력은 역자의 모국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국어에 따라 번역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 작품을 영역할 때는 ‘변형’(좀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정)에 유리한 내향 번역가를 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송요인은 이후에 출판된 박사학위 논문과 『TP』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스키마의 작동 원리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면, 자신의 스키마가 나이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스키마의

37) 송요인(Song, 1974a, p. 17)은 <그림 4>가 <그림 3>의 변형이라고 명시한다.

38) 가역(translatable)을 ‘(이제야) 다른 언어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으로 해석해야 모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이 번역의 본질적 영역 — 특히 역변형의 과정과 가역 핵 구조의 정체 — 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은 가역 핵 구조를 재조명한 논문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Revisited」(1979)의 서언(序言)을 통해 가능하다.

翻譯理論[번역이론]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本人[본인]이 假設[가설]로 提示[제시]한 可譯核構造(Translatable Core Structure)이며, 本稿[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再檢討[재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解決[해결]을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종래의 막연했던 主張[주장]을 좀 더 실속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假設[가설], 즉 統辭·意味·話用論的 原素[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Pragmantactic Primes)의 존재를 提示[제시]했으며, 이러한 원소의 集結(bundle)이 즉 可譯核構造가 된다는 立場[입장]을 취한 것이다. 물론 進行中[진행 중]인 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종 結論[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며, 國內外[국내외] 同學[동학]의 反應[반응]³⁹⁾을 절실히 期待[기대]할 따름이다. (송요인, 1979, p. 37)

윗글에서 송요인은 번역의 인지적 메커니즘이 “번역 이론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라 지적한 후, 자신이 수년 전에 제안한 스키마가 “막연했던 주장”이었음을 고백한다. 그가 언급했듯이 1979년 논문도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하지만, 그 세부 내용이 『TTS』(1984)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음을 고려하면 79년 논문이 송요인의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cf. 본고의 5장). 그가 구상한 ‘가역 핵 구조’는 통의화론적 토대의 묶음(bundle), 즉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pragmantactic prime)⁴⁰⁾로 이루어진 기본 체제이다. 그는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9) 송요인이 기대했던 (논문을 통한) 학문적 소통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흥미롭게도 송요인의 가역 핵 구조를 고찰한 석사학위 논문이 한 편 있다(이영근, 1990).

40) pragmantactic은 prag(pragmatic) + man(semantic) + tactic(syntactic)의 조어로 이해하면 된다. ‘원소’는 그가 제시한 prime의 대응어이다.

표 1

가역 핵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송요인, 1979, pp. 41-43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단계	문장(구조의 재현)	설명 요약
원문 ↓	“처음 뵙겠습니다.”	<i>first see</i> (+ 존칭 어미)
통사론적 변환 ↓	(1) I see you first time.	영어 구문(문법)에 필요한 주어(1)와 목적어(you)를 복원해 적절한 자리에 배치한다.
의미론적 변환 ↓	(2) I meet you for the first time.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장 (1)을 의미론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따라서 (1)을 (2)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화용론적 변환 ↓	(3-1) I haven't met you before. (3-2) I don't think I have met you before. (3-3) I don't think I'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you before.	실제 대화 상황을 고려해 화용론적 보강이 필요하다. 따라서 (2)를 (3-1), (3-2), (3-3)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은 모두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층구조보다는 복잡하고 표층구조보다는 단순하다.)
문체화	(4) May I introduce myself? 등	문체 등을 입혀 (4)와 같은 번역문을 만들 수 있다.

<표 1>의 내용을 찬찬히 보면 “처음 뵙겠습니다”가 “May I introduce myself?”로 변환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언어학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사·의미·화용론적 변형 중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모두 필요하다(Song, 1979, p. 41).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는 송요인이 제시한 번역 스키마의 핵심이다. 그는 이 개념에 착안해 자신의 모델에 차별성을 부여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나이다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통사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지만, 자신의 모델은 통사·의미론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Song, 1984, p. 76).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사·의미·화용론적 변형이 나이다가 설명한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가 불필요하게 현학적이라는 인상도 준다. 가령 송요인은 prime[분해할 수 없는 기본 요소]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은 채, prime과 가역 핵 구조를 연결하여 논한다.⁴¹⁾ 그가 고백했

41) 예컨대 ‘의미 원소’(semantic prime)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 언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편성을 띠는 기본 의미 단위다.

듯이, 80년대 동료 연구자들도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를 “크고 복잡해서 다루기 힘든”(cumbersome) 용어로 평가했을 정도다(Song, 1984b, p. 3).⁴²⁾ 결국, 그는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층위의) 개념인 ‘역소’를 구상하게 된다.⁴³⁾

6. 번역의 기본 단위 — 역소

송요인(Song, 1984a)의 역소(transeme)는 동시대의 유사 개념,⁴⁴⁾ 특히 ‘논리소’(logeme)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논리소는 헝가리의 번역가이자 언어학자인 죄르지 라도(György Radó)가 주창한 번역 등의 기본 단위로, “번역 과정에서 ‘식별하고 재생산해야 할 원문의 요소들’을 뜻한다(Radó, 1979, p. 189, Shuttleworth & Cowie, 1997, p. 97에서 인용). 논리소는 형태소나 단어처럼 작은 단위나 낮은 층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와 절 심지어 시의 운율 같은 텍스트적 특징들도 아우른다(Radó, 1979, p. 191, Shuttleworth & Cowie, 1997, p. 97에서 인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송요인은 이러한 개념적 확장성을 자신의 역소에도 적용한다.

42) The term “transeme” was adopted in response to some of my colleagues’ less than enthusiastic endorsement of its cumbersome predecessor “pragmantactic prime.” 이와 관련해, 본 논문의 심사위원 1인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송요인의 ‘현학적’ 노력은 1960~70년대의 언어학 연구의 주된 흐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구조주의의 영향을 이어받은 당시 변형생성문법의 틀에서, 소리에서부터 의미의 각 언어 층위의 ‘최소 단위’를 밝히는 노력이 언어학 연구를 휩쓸었다.”

43) 그는 1982년 FIT가 후원하는 한 심포지엄에서 가역 핵 구조를 소개했다. 이 발표가 토대가 되어 역소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Song, 1984a, p. 174).

44) 송요인(Song, 1984a, p. 182)은 “역소 가설은 동학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Nida의 모호성, Vinay & Darbelnet[비네와 다르벨네]의 표층편중성, Popović[포포비치]의 운곽불투명성, 그리고 Radó의 범다원성 등의 결합을, 비록 만족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실감있게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언어학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최근 연구의 결과 등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한다. 이 역소와 판 루이븐-즈바르트(van Leuven-Zwart, 1989)의 ‘번역소’(transeme)를 비교해 보라.

송요인이 1984년 논문 「The Transeme: An Autonomous Unit of Translation」에서 역소의 개념을 제안한 것은 일차적으로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의 개념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명사 ‘역’(translation)과 접사 ‘소’(-eme)의 합성어인 역소는 “언어적 경계를 넘어설 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음운·통사·의미·화용론적 특징 그리고 화행 특징의 묶음”으로 정의된다(Song, 1984a, p. 176, 강조는 필자의 것).⁴⁵⁾ 복잡한 이 정의를 기존의 ‘통사·의미·화용론적 원소’와 비교해 보면, ‘음운론적 특징’과 ‘화행 특징’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운론적 특징은 가역 핵 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바, 음운론을 추가한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반면 화행(speech acts)을 포함한 점은 다소 의아하다. 화행은 실질적으로 화용론의 범주에(도) 속하므로 화행 이론을 별도로 표시한 것은 매우 유표적인 결정이다. 추정컨대, 화행의 핵심 요소들, 특히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⁴⁶⁾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화행’을 별도로 표기한 게 아닌가 싶다(Song, 1984a, p. 178). 유의할 점은 역소가 항상 음운·통사·의미·화용론적 특징과 화행 특징 ‘전부’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이 같은 특징 범주 중 일부만이 번역 대상의 역소적 특징(transemic characteristics)을 구성할 수 있다.

역소적 특징, 즉 역소가 어떤 특징 묶음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최종 번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몇 가지 사례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역소의 사례(송요인, 1984a, pp. 176-177의 내용을 필자가 변형하여 정리함)

유형	영어 번역	특징	설명
역소 A	원문: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니?”, “어딜 가?” 등] Hello! / Hi! / How's everything? / How are you?	의례적 pha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청자의 관계: 친밀함 • 맥락: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상황 • 의도: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님

45) a bundle of phonologico-syntactico-semantic-pragmatic *cum* speech act features that are transferred obligatorily across language boundaries

46)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는 주장, 약속, 명령, 경고 등 특정 목적의 수행을 의도한 언어적 행위이다. 즉,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문장으로 실현된다.

역소 B	<i>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 You're not supposed to be going there [without my approval].</i>	경고적 admon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청자의 관계: 좋은 상태 아님 • 맥락: 사회적으로 특별한 제약이 있을 때(위계가 작용) • 의도: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님
역소 C	<i>Where are you going [of all those places]? / Could you tell me where you're going [since I see you're packing, getting your car started, on the road, on the train, applying for a passport?]</i>	탐구적 inquis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청자의 관계: 관련성 없음 • 맥락: 자동화된 맥락(기존 맥락에 따라 세부 의미가 한정됨) • 의도: 정보를 얻기 위함
역소 D	<i>Are you leaving for someplace? / Are you going somewhere [though I'm not interested in knowing exactly where you're going?]</i>	구성적 configur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청자의 관계: 친밀함 • 맥락: 전경화된 맥락(즉, 특정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 의도: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님(다만, 부차적임)

<표 2>가 보여주듯이 원문의 표층구조가 같거나 비슷해도 번역문은 역소의 유형(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표의 네 번째 세로 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소는 ‘화자-청자의 관계’, ‘맥락’, ‘의도’(말화수반행위) 등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역소 A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약속이 있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철수가 오랜만에 이웃 주민을 만난다. 이웃 주민이 철수를 보자, “어디 가십니까?”라고 반갑게 묻는다. 이때, 이웃 주민의 ‘질문’을 표층구조 그대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 질문의 일차적 목적은 철수의 목적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를 건네기 위함이다. 그러니 (한국적 맥락에서) 철수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도 대화를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다.

<표 2>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음운론적 특징도 역소와 번역을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외출 금지를 당한 아이가 놀러 나가려 하자, 엄마가 낮은 어조로 “어디 가는 거야?”(역소 B의 사례)라고 묻는다. 이 경우 음운론적 특징도 역소의 일부가 될 수 있다.⁴⁷⁾

송요인은 4년 후 발표한 논문 「Some Transemic Characteristics of *Nim*」에

47) 음운론적 특징은 단어 차원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뒤죽박죽’을 hodge-podge 혹은 higgledy-piggledy로 번역할 수 있다(Song, 1984a, p. 178).

서 역소에 관한 논의를 사회기호학의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님’은 존경을 뜻하는 접미사뿐만 아니라 존경과는 무관한 접미사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후배님’의 님은 존경을 표하는 접사이기보다는 공식 석상에서 쓸법한 존칭 접사이고, ‘해님’의 님은 대상을 의인화/인격화하는 접사이다. 송요인(Song, 1988, pp. 106-107)은 이런 사례들을 분석한 후, 한국어 담론에서 사용되는 ‘-님’의 ‘역소 범위’(transemic range)⁴⁸⁾를 몇 가지로 정리한다. 그리고 ‘-님’처럼 사회기호학적으로 복잡한 어휘를 번역할 때는 역소 범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회기호학적 특징’이라는 술어만을 사용할 뿐, 사회기호학에 관한 심도 있는 담론을 이어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송요인은 가역 핵 구조와 역소를 이론화하면서 언어학의 하위 영역과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였다. 나이다의 통사·의미론을 극복하고자 화용론을 끌어왔고, 통사·의미·화용론을 보완하기 위해 음운론을 가져왔으며, 화용론의 막연함을 덜기 위해 화행 이론을 가미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사회기호학의 추가 가능성도 실험적으로 타진했다. 이처럼 ‘인접’ 학문의 흐름⁴⁹⁾을 고려하여 자신의 연구를 꾸준히 심화하는 노력은 학자로서 본보기가 될 만하다. 하지만 언어학의 하위 요소들을 층층이 쌓아, 마치 언어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할 것처럼 원개념을 확대하면, 오히려 이론의 신뢰성과 수용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역소 연구가 가역 핵 구조의 난해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소의 개념적 복잡성은 역설적으로도 느껴진다. 또한 ‘역소 범위’라는 개념이 의미론적 범위(semantic range)와 얼마나 다른지도 의문이다.⁵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실마리는

48) 언어학 용어 collocational range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동사 run과 언어 관계에 있는 명사는 business, course, drug, mile, temperature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반면, 동사 terrorize의 언어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49) 언어학의 하위 분야들이 단선적으로 발전한 건 절대 아니다. 다만, 핵심 연구자와 연구 경향을 고려하면, 통사론 → 의미론 → 화용론 → 사회기호학 정도의 흐름을 도출할 수 있다.

50)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접미사 ‘-님’은 다음과 같다. “1.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장님. 2.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아쉽게도 그의 글에서 찾을 수 없다. 1989년 그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역소에 대한 학문적 여정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7. 맺음말: 제2의 송요인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송요인은 번역의, 번역에 관한, 번역을 위한 인지 영역들을 탐구하였다.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언어, 문체, 담화와 같은 텍스트 층위의 주제들을 연구했지만, 본격적으로 번역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번역이라는 행위를 둘러싼 거시적 담론이나 사변적 전제에 집중하였다. 그가 논의했던 벨트안샤우웅, 가역 핵 구조, 역소 등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이며, 해외에서도 관련 이론은 80~90년대의 성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송요인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주제들을 선택해 탐구하면서, 번역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송요인의 이론에는 세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그의 번역 이론은 언어학의 콜라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언어학의 틀에 갇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가역 핵 구조나 역소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언어학의 하위 분야나 개념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덧붙이기 방식은 이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으나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런 한계는 현시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송요인은 번역학자이기 전에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며, 번역학 논문을 쓰면서도 언어학과 영어교육 연구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번역 이론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시기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번역학 분야에 뿌리를 내렸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 역시 서구의 다른 학자들처럼 “화용론적 전환”(Pragmatic Turn)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Snell-Hornby,

접미사. 달님. 3. ((옛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공자님.” 이 사전적 의미와 송요인이 논문에서 소개한 역소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06, p. 35), 언어학이라는 렌즈를 버리고 다른 관점에서 번역의 인지적 측면을 들여다보기란 여간해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일부 이론은 추상적인 단계로 남아 있다. 특히 가역 핵 구조와 역소는 그가 역점을 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이 점은 『TTS』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벨트안샤우웅과 슈프라흐게휠에 관한 논의가 본문 절반을 차지하는 데 반해, 가역 핵 구조와 역소에 관한 내용은 각각 8쪽과 7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대칭은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다. 예컨대 가역 핵 구조와 역소가 서구의 유사 이론들보다 이론적 정합성이 크다고 주장한 만큼,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례를 좀 더 추가하고,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복잡한) 내용을 반영했어야 했다. 만일 한국어-영어 쌍이 아니라 영어-유럽어 쌍을 번역 사례로 제시했다면 해외 독자층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일조했을 것이다.

셋째, 번역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송요인의 번역 이론은 주로 사변적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전문 번역가가 현실에서 중시하는 텍스트 층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문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순수 이론일 때가 많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벨트안샤우웅과 가역 핵 구조 등은 언어학에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개념들이다. 물론, 그의 학문적 성향으로 짐작하건대, 송요인이 이런 주제 대신에 좀 더 쉬운 길, 좀 더 인기 있는 주제부터 택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현실적인 주제를 선택해 연구와 실무를 연계했다면, 그의 학문적 성과가 좀 더 확산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국내 번역학의 지형도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띠었을지 모른다.

송요인이 번역을 연구했던 환경과 지금 상황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나 달라졌다. 2025년 초 현재, KCI에 등록된 통·번역학 전문 학술지는 6종이 되었고, A&HCI 등급의 해외 학술지도 최소 12종에 이른다. 비록 확장세는 꺾였으나 통·번역학 전공/학과도 여전히 건재하며, 국제 무대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번역학 연구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업계에

서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이나 AI 보조 번역이 활성화되면서 실무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시대로 ‘80년대의 송요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 ‘K-컬처’의 인기와 내향 번역가의 확산⁵¹⁾ 그리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에 무척이나 놀랄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에 감탄하면서도 인간 번역의 의미를 고민할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지금껏 묻혀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탐구했던 주제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사실에 놀라거나 실망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열정을 다해 연구할 것이며, 동시에 번역학계의 운명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거란 점이다. 번역학의 독립과 건립을 누구보다도 바랐던 사람 아니던가?

국내 번역학계에 ‘제2의 송요인’이 나올 수 있을까? 남들이 밟지 않은 길을 정진하는 자, 해외 학계와 교류하며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는 자, 업계와 주변 학문을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 말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내 학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전임교원, 대학원생, 저널 논문 등에 관한 지표를 보면, 몇 년 전부터 학계 상황이 뚜렷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⁵²⁾ 따라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송요인’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1인 영웅이 아니라, 송요인이 구축하고자 했던 번역학 커뮤니티를 끝까지 지키는 일군의 학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학자의 모습은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런 자아 성찰이야말로 송요인이라는 선구자를 기리는 동시에, 번역학계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51)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대학원은 내향 번역가 양성 등을 목표로 다수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 심사위원은 기존 대학원도 (외국어) 슈프라흐게헬을 고려해 입학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 “통역번역학” 분야에 등록된 KCI 논문 수는 2020년 167편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0편가량씩 줄어 2024년에는 127편이 되었다.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학문 후속 세대가 늘지 않는 이상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듯싶다.

참고문헌

- 김효중. (2002). 번역 가능성에 대한 고찰. 언어학, 34, 21-47.
- 동대신문. (1968. 12. 5.). 『국민교육헌장』 선포. 동대신문, 410호, 1면.
- 동대신문. (1989. 8. 30.). 송요인·김창희 교수 별세. 동대신문, 1026호, 1면.
- 송요인. (1972). 산문 작품의 영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영어영문학, 42, 33-53.
- 송요인. (1975. 5. 13.). 翻譯文學의 당면 課題. 동대신문, 610호, 2면.
- 송요인. (1976. 3. 16.). 新入生을 위한 特別企劃 — 내가 다시 大學生이 된다
면. 동대신문, 635호, 2면.
- 송요인. (1986). 韓國作品의 외국어 번역 現況: 이론과 실제적인 考察. 예술비평,
가을호, 116-133.
- 송요인, 이창배, 조연현. (1970. 4. 23.). [韓國文學 번역의 課題] 역자와의 정
답. 동대신문, 448호, 2면.
- 이상빈. (2019). 번역문체 비교 연구: 소설 「유형의 땅」과 인바운드 vs 아웃
바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3), 125-147.
- 이상빈. (2020a). 마샬 필의 <홍길동전> 경판본 번역 분석. 통번역학연구,
24(4), 97-124.
- 이상빈. (2020b). 마샬 필(Marshall R. Pihl)의 번역 자가교정(self-revision)을
통해 살펴본 한국문학 번역의 방향. 번역학연구, 21(5), 207-235.
- 이상빈. (2021a). 마샬 필의 단편소설 번역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과 한국문
학 번역에의 교훈: 다른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번역학연구, 22(2),
149-184.
- 이상빈. (2021b). 판소리는 어떻게 풍요롭게 번역할 수 있는가 — 마샬 필의
<심청가> 번역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73-200.
- 이영근. (1990). *A modal-theoretic review of Song s (84) translatable core
structur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종호. (2021). 1960년대 한국단편소설의 영어번역 양상 연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Korea Journal*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677-708.

- 이종호. (2022). 한국문학번역장의 형성과 세계문학을 향한 열망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Korea Journal*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2, 289-330.
- 정연희. (2015). 건설의 勇將, 건설의 智將. 아산의 향기, 봄호, 34-37.
- 조병태. (1975. 6. 24.). 書評: ‘翻譯의 理論과 실제.’ 동대신문, 615호, 4면.
- 조의연. (편). (2014). 번역문체론. 한국문화사.
- 조의연과 이상빈. (공편). (2023). K 문학의 탄생: 한국문학을 K 문학으로 만든 번역 이야기. 김영사.
- 최해춘. (1973). 翻譯의 理論과 그 問題點: 韓國의 散文文學의 英譯을 中心으로.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 황태훈. (2009). 동서양 통역번역학이 만나다. 동아일보. <https://bit.ly/41sS0h9>
- Fulton, B. (2020). Suggested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Translation Review*, 108(1), 104-110.
- Kwon, Y., & Fulton, B. (2020). *What is Korean literatur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Lee, S.-B. (2019). Marshall R. Pihl and his views on how to enrich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9(2), 147-165.
- Lee, S.-B. (2020). In honor of Marshall R. Pihl: A comprehensive review of his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Review*, 108(1), 64-77.
- Lee, S.-B. (2021). Marshall R. Pihl's translation of *chang* (song) in "Sim Ch'öng ka." *Acta Koreana*, 24(2), 31-54.
- Munday, J., & Vasserman, E. (202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A reappraisal. *Translation and Translanguaging in Multilingual Contexts*, 8(2), 101-113.
- Nida, E. (1969). Science of translation. *Language*, 45(3), 483-498.
- O'Rourke, K. (1988). Review of the book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by Yo-in Song, Ed. and Trans. *Korea Journal*, 28(1), 39-40.
- Pihl, M. (1985). Review of the book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 by Yo-in Song. *Korea Journal*, 25(1), 34-35.
- Radó, G. (1985). Review of the book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 by Yo-in Song.

- Babel*, 31(2), 108.
- Shuttleworth, M., & Cowie, M.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St. Jerome.
- Snell-Hornby, M.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John Benjamins.
- Sohn, T. (2007).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English translations of “Gamja” by Kim Dong-i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0(4), 269-289.
- Song, Y. (1970. 2. 1.). Cooperative work for translation suggested. *Korea Times*.
- Song, Y. (1974a). *Translation: A modern synthesis — A study in crosslingual commun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Song, Y. (1974b). Implications of Weltanschauung in literary translation. *Korea Journal*, 16(6), 4-9.
- Song, Y.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Dongguk University Press.
- Song, Y. (1976). Some implications of Weltanschauung in translation theor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Korean. *언어*, 1(1), 89-120.
- Song, Y. (1978). An inquiry into Sprachgefühl dynamics. *동국대학교 논문집*, 17, 31-53.
- Song, Y. (1979).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revisited. *동국대학교 논문집*, 18, 37-46.
- Song, Y. (1984a). The transeme: An autonomous unit of translation. *영어교육*, 28, 173-182.
- Song, Y. (1984b).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 Han Shin.
- Song, Y. (1986). Outbound vis-à-vis inbound translation. *Dongguk Review*, 14-15, 201-208.
- Song, Y. (1987).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Buddhist poems from Korea*. Dongguk University Press.
- Song, Y. (1988). Some transemic characteristics of *nim*. *Dongguk Review*, 16-17, 101-108.
- Song, Y. (2014). 문체의 제 문제 (송연석 번역). 조의연. (편), 번역문체론 (pp. 17-36). 한국문화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Torres Simón, E. (2005). *Translation and urgency in postbellum image building*:

Translations from Korean published in the US after the Korean Wa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van Leuven-Zwart, K. (1989). Translation and original: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 *Target*, 1(2), 151-182.

van Volkenburg, M. (2021). ‘Traitorous’ translators tread carefully in Korean literature. *Korea Times*. <https://bit.ly/3CQX3yt>

부록 1: 송요인의 한국문학 번역본

<저널에 수록된 번역>

Song, Y. (1966). Hwang Sun-wŏn’s “For dear life.” *Korea Journal*, 6(9), 22-26.

Song, Y. (1967). Miss An Yong’s “Call it sympathy.” *Korea Journal*, 7(10), 20-29.

Song, Y. (1971). Pi Ch’ŏntŭk’s “Mŏt.” *Korea Journal*, 11(4), 43-44.

Song, Y. (1971). O Yŏng-jin’s “Wedding day (1).” *Korea Journal*, 11(12), 36-50.

Song, Y. (1972). O Yŏng-jin’s “Wedding day (2).” *Korea Journal*, 12(1), 39-47.

Song, Y. (1979). Yi Ku-jo’s “A shield-shaped kite.” *Korea Journal*, 19(8), 37-38.

Song, Y. (1980). Lee Gun-sam’s “A respectable profession.” *Korea Journal*, 20(3), 25-35.

Song, Y. (1983). Sŏ Chŏng-ju’s poem “Untitled.” *Korea Journal*, 23(2), 65.

<선집 또는 편저의 일부>

Song, Y. (1970). Yu Ch’i-jin’s “Fatherland.” In *Modern Korean short stories and plays* (pp. 441-473). Korean Centre, International P.E.N.

Song, Y. (1970). Ch’a Pŏm-sŏk’s “Barren land.” In *Modern Korean short stories and plays* (pp. 475-532). Korean Centre, International P.E.N.

Song, Y. (1970). Lee Gun-sam’s “A respectable profession.” In *Modern Korean short stories and plays* (pp. 533-561). Korean Centre, International P.E.N.

Song, Y. (1974). Kang Sinjae’s “The young zelkova.” In P. H. Lee (Ed.), *Flowers of fire: Twentieth-century Korean stories* (pp. 348-3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ong, Y. (1979). Kwŏn Ilsong's "The lamp of Tehrean." In *Friends: Korean modern poetry* (pp. 237-238). The 4th World Congress of Poets.
- Song, Y. (1982). Lee Chong-jun's "Fool and idiot." In *New translations from Korea: A selec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 Song, Y. (1983). Hwang Sun-wŏn's "For dear life." In *The drizzle and other Korean short stories*. Korean Nat'l Commission for UNESCO.
- Song, Y. (1983). "Wedding day." In *Wedding day and other Korean plays* (pp. 1-57). Korean Nat'l Commission for UNESCO.
- Song, Y. (1988). "The maiden-hair sutra." In *Again & again: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ms* (pp. 115-116). The 52nd International P.E.N. Congress.
- Song, Y. (1988). "The sound of the wind by the pine grove." In *Again & again: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ms* (p. 153). The 52nd International P.E.N. Congress.
- Song, Y. (2020). Yi Kŭnsam's "A respectable profession." In Y. Kwon & B. Fulton, *What is Korean literature?* (pp. 208-225).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역서>

- Song, Y. (1987).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Buddhist poems from Korea*. Dongguk University Press.

부록 2: 송요인의 번역에 관한 연구

<논문과 서평>

- 송요인. (1972). 산문 작품의 영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영어영문학*, 42, 33-53.
- 송요인. (1986). 韓國作品의 외국어 번역 現況: 이론과 실제적인 考察. *예술비평*, 가을호, 116-133.
- Song, Y. (1969). *Literary translation: A linguistic overview*. 동국대학교 논문집,

6-7, 113-130.

- Song, Y. (1971). Literary translation: A linguistic overview. *Korea Journal*, 11(6), 16-32.
- Song, Y. (1972). Some basic concepts: Terminology and typology of translation. In *Papers to honor Professor Chang-Ho Choe on his 60th birthday* (pp. 321-330). Chung-Ang University.
- Song, Y. (1973). Obligatory categories in translation. *Korea Journal*, 13(1), 34-36.
- Song, Y. (1973). Cultural equivalence matching in translation. *Korea Journal*, 13(5), 49-52.
- Song, Y. (1973). Co-occurrence restriction in translation: Paired circles. *동국대학교 논문집*, 11, 85-96.
- Song, Y. (1974). Dimensions of opacity in translation. *동국대학교 논문집*, 13, 83-95.
- Song, Y. (1974). Implications of Weltanschauung in literary translation. *Korea Journal*, 16(6), 4-9.
- Song, Y. (1974). Discourse analysis in translation. In *Papers to honor Professor Suk-Kyoo Oh on his 60th birthday* (pp. 243-254). Dongguk University.
- Song, Y. (1974). Discourse analysis in translation. *Dongguk Review*, 5-6, 243-254.
- Song, Y. (1975). Interaction between linguistics and literature. *동국대학교 논문집*, 14.
- Song, Y. (1975). Linguistics and literature. *Korea Journal*, 15(9), 14-21.
- Song, Y. (1976). Some implications of Weltanschauung in translation theor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Korean. *언어*, 1(1), 89-120.
- Song, Y. (1976). Implications of Weltanschauung in literary translation, East and West. In *Thirty years of turmoil in Asian literature* (pp. 83-91). Taipei P.E.N.
- Song, Y. (1978). An inquiry into Sprachgefühl dynamics. *동국대학교 논문집*, 17, 31-53.
- Song, Y. (1979). Implications of Sprachgefühl dynamics. *English Teaching*, 17, 1-24.
- Song, Y. (1979).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revisited. *동국대학교 논문집*, 18, 37-46.
- Song, Y. (1981). Phatic Communion의 翻譯에 관한 研究 = 韓·英語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12, 335-378.

- Song, Y. (1982).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revisited. *Korea Journal*, 22(9), 33-38.
- Song, Y. (1983).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revisited (Revised version). 번역가, 2 (Publication of the FIT Korean Chapter), 59-67.
- Song, Y. (1984). The transeme: An autonomous unit of translation. *영어교육*, 28, 173-182.
- Song, Y. (1986). Simultaneity in translation. *동국대학교 논문집*, 25, 1-10.
- Song, Y. (1986). Outbound vis-à-vis inbound translation. *Dongguk Review*, 14-15, 201-208.
- Song, Y. (1988). Some transemic characteristics of *nim*. *Dongguk Review*, 16-17, 101-108.
- Song, Y. (1988). Review of the book *Faces in the Well*, by Ji-moon Suh. *Korea Journal*, 28(10), 59-60.
- Song, Y. (1988). Review of the book *Tilting the Jar, Spilling the Moon*, by Kevin O'Rourke, Ed. and Trans. *Korea Journal*, 28(11), 27-29.
- Song, Y. (1991). Remarks on cultural transfer from an LLD. *TTR*, 4(1), 63-79.

<학위논문과 저서>

- Song, Y. (1974). *Translation: A modern synthesis — A study in crosslingual commun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Song, Y.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Dongguk University Press.
- Song, Y. (1984).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 Han Shin.

부록 3: 그 밖의 저작물

<학술지 논문>

- 송요인. (1967). 언어교육을 위한 Research Design. *어학연구*, 3(2), 36-57.
- 송요인. (1967). Sibilant sounds 소고: Eddy cavity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4, 3-23.

송요인. (1968). 미국 내 주요 대학의 어학실습 시설 현황. *English Teaching*, 4, 9-14.

송요인. (1968). TESOL: 성격과 방향. *영어영문학*, 27, 118-129.

송요인. (1970). Dickens와 Thackeray의 소설. *Apollo*, 1, 134-139.

송요인. (1970). 제2분과 주제: 영작교수법. *English Teaching*, 6, 37-39.

송요인. (1972). 언어학습 — 연구발표와 관련하여. *English Teaching*, 9, 23-35.

송요인. (1973). 토의: 개편된 중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English Teaching*, 10, 55-68.

송요인. (1977). 한국에 있어서 Linguistico-Literary Fusion의 전망. *어학*, 4, 1-7.

송요인. (1977). 정의적 반응에 관한 Case Study. *Dongguk Review*, 7, 105-116.

송요인. (1977). Lexical accretion의 최근 양상. *영어교육*, 14, 17-31.

송요인. (1978). 영어교육: 이론적 Bandwagon과 반이론적 Backlash. *영어교육*, 16, 1-17.

송요인. (1980). 외국어 작문 교육의 3단계 분석. *외국어교육 논문집*, 1, 79-92.

송요인. (1981). Nabokov의 어휘: Lolita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논문집*, 20, 45-58.

Song, Y. (1967). The consonant systems of English and Korean: A study of pedagogical problems. *동국대학교 논문집*, 3-4, 149-168.

Song, Y. (1968).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glottal stop. *동국대학교 논문집*, 5, 129-148.

Song, Y. (1970). Seoul beleaguered. *Korea Journal*, 10(11), 17.

Song, Y. (1971). Review of the book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by D. Terence Langendoen. *영어영문학*, 38, 119-133.

Song, Y. (1971). Nunch'i. *Korea Journal*, 11(10), 32, 43.

Song, Y. (1972). Some implications of attitude in language learning. *동국대학교 논문집*, 10, 67-82.

Song, Y. (1972). The neo-North Korean speech glimpsed. *Korea Journal*, 12(12), 15-16.

Song, Y. (1973). Nunch'i. In D. B. Shimer (Ed.), *Voices of modern Asia: An anthology*

- of twentieth-century Asian literature* (pp. 202-204). New American Library.
- Song, Y. (1976). Language learning and the real world. *동국대학교 논문집*, 15, 49-58.
- Song, Y. (1977). TEFL: A misoneistic backlash. *동국대학교 논문집*, 16, 29-37.
- Song, Y. (1977). Influence peddling. *Korea Journal*, 17(9), 66.
- Song, Y. (1977). Koreans conquer Everest. *Korea Journal*, 17(10), 55.
- Song, Y. (1978). Korean pride. *Korea Journal*, 18(10), 41.
- Song, Y. (1981). Panel 1: What's going on in the classroom? *영어교육*, 21, 241-243.
- Song, Y. (1981). [Freshman English] A reassessment: The case of Dongguk University. *Dongguk Review*, 8-9, 167-178.
- Song, Y. (1983). The proper noun front-shifted: A study of case relations. *동국대학교 논문집*, 22, 43-59.
- Song, Y. (1983). The case of the front-shifted proper noun. *영어교육*, 26, 145-161.
- Song, Y. (1984). In quest of quasi-collocations. *동국대학교 논문집*, 23, 19-28.
- Song, Y. (1984). The language of *Nineteen Eighty-Four*: An analysis of Orwell's prose. *Dongguk Review*, 12-13, 349-365.
- Song, Y. (1985). TEFL: Some theoretical pioneers in Korea. *영어교육*, 29, 7-25.

<학위논문 및 저서(공저 포함)>

- Song, Y. (1961). (An) inquiry into split infinitiv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Song, Y. (1976). A laboratory course in college English (Co-authored by members of the Colleg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of Korea).
- Song, Y. (1978). ELSOK college English composition (Co-authored by Cho Söngshik, Mun Yong, Pak Kyöngsu, Pak Myöngsök, Song Yo-in & Yang Chishik).
- Song, Y. (1991). *Sojourns in Korean culture: Song s essays*. Dongguk University Press.

A pioneer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Song Yo-in's translation theory and legacy

Sang-Bin Lee (sblee0110@naver.com)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South Korea

Abstract

The origin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can be traced back to the late 1960s, when translation had not yet been acknowledged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study. During this formative period, Song Yo-in, a professor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Dongguk University, sought to develop his own translation theory. Song earned his doctorate in 1974 with a dissertation on translation theory, which later became the foundation for his first book,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1975). His engagement with translation studies deepened over the following decade, culminating in the publication of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 (1985). Until his passing in 1989, Song remained a leading figure in the field, producing a significant body of work now considered central to Korean Translation Studies. Nonetheless, his legacy has not received the recognition it merits, even within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Considering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examines Song's life and contributions, with an emphasis on four key concepts in his work: *Weltanschauung* (world view), *Sprachgefühl* (language feeling), the translatable core structure (the minimal essential structure for translation), and transeme (an autonomous unit of translation). By analyzing each of these concepts in detail, this essay explores both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his academic legacy.

Keywords: Early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a pioneer in translation studies; first volumes on translation theory; cognitive dimensions of translation;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키워드: 한국 번역학의 역사, 최초의 번역학자, 최초의 번역 이론서, 번역의 인지적 측면, 한국문학 번역

이상빈(<https://orcid.org/0000-0003-2140-3266>)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sblee0110@naver.com

논문 투고일: 2025년 4월 22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6월 15일